

The dream was of a mighty tree. A tree that dominated its landscape and provided food, shelter and refuge for all. However as the king took in this impressive tree a watcher came down from heaven. This angelic being declared that the tree was to be stripped and then chopped down. Only the stump and roots bound in bronze and iron were to remain. The king sensed that the dream carried an important message but he was unable to interpret it himself. The only person who was able to provide an interpretation was the chief of the magicians (scholars); Daniel.

Daniel upon hearing the dream is himself troubled for a time. God had given him the meaning, he therefore knows the disaster that will soon befall the king. Upon the king's urging Daniel explains what it all means. The tree represents the king. As the head of the vast Babylonian empire he provided for the needs of the people; food, shelter and safe refuge. However God had become displeased with the king's pride and lack of humility. He is to be taught a lesson that will bring about a vital character change. He is to be punished for a period of seven years. The king is to be cut down and bound by a severe bout of mental illness. During this time he will live like a wild beast, eating grass and being exposed to the elements. Daniel very importantly finished his account by advising the king to do two things. Firstly he is to confess before God that he is a sinner. He is to break off from his sins and try to live a righteous life. Secondly he is to be kinder, or show greater mercy to the poor. If he does these things then God may relent, show him mercy and extend the length of his prosperity.

Does the king listen and take heed of Daniels words? We must assume not. We can fairly safely make this claim because exactly 12 months later when he is walking across the roof of his palace he is struck down with madness exactly as Daniel had predicted. The king as he surveys the wonderful city around him praises himself for the many achievements he sees. He neglects to acknowledge God who is the one who made it all possible. God tells the king that all the things that had been prophesied would take place now will. He will be led like a beast out into the wilderness where he will crawl around eating grass like a cow. What a truly humbling experience for this proud and arrogant man.

Last week I ended with a little bit of a teaser. I told you that this story does not end in tragic fashion. It does not end with the king crawling through the mud barely recognisable as a human being. Instead, the story ends in the most amazing and uplifting manner. That will be the subject of our sermon today. Before we turn to that however will you join me in prayer.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마무리 되는 오늘의 성경 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우리가 이야기의 어느 자점에 있는지 상
가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바빌론은 강력해지고 번창했습니다. 왕은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자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의 방식이 잔인하고 야만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왕들은 대부분이 폭군이었습니다. 바빌론은 오랜 세월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제 왕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편안하고 평화롭게 노년을 보내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인생의 좋은 것들을 즐기려고 했겠죠. 그런데 왕은 꿈을 꿉니다. 그의 영혼 깊숙이 그를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거대한 나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장엄하게 주변 환경을 압도하고 모든 생명체에게 먹을것, 은산처, 파닌처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이 인상적인 나무를 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감시자가 내려왔습니다. 이 천사는 나무를 베어내라고 선언했습니다. 철과 놋줄로 묶인 그루터기와 뿌리만 남게 됩니다. 왕은 꿈이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은 마법사들 학자의 주장인 다니엘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듣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곧 왕에게 탁월 재앙을 알렸습니다. 왕의 재촉에 다니엘은 꿈을 해석했습니다. □□□□□□□□□□ . 광대한 바빌론 제국의 왕으로서 그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음식, 거처, 안전한 파닌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의 교만과 오만함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는 그

의 성격을 급격하게 바꿀 교훈을 배울 것입니다. 왕은 7 년 동안 벌을 받게되는데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풀을 먹고 야생에서 짐승처럼 살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다니엘이 왕에게 두 가지로 조언하면서 해석을 마쳤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을 □□□□□□ □□□□. 둘째,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왕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성공적인 삶을 연장해주실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의 충고에 주의를 기울였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2 개월 후 그가 궁전 지붕을 거닐고 있을 때 다니엘이 예측한 대로 광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왕은 멋진 도시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룬 많은 업적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예언된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짐승처럼 광야로 내몰리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기어다닐 것입니다. 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경험이였을까요.

지난 주에 저는 약간의 마리보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비극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은 땅을 기어다니며 들짐승처럼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이야기는 가장 놀랍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Amazing conversions

In the bible we read about the great joy experienced in heaven when a lost sinner repents and comes to faith.

I say to you that likewise there will be more joy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ninety-nine just persons who need no repentance. (Luke 15:7)

Isn't that a wonderful bible verse. That means that if you have confessed and repented and put your faith in Christ alone for your salvation this happened for you. Just imagine it. There was moment when the angels celebrated over you.

There is nothing quite so touching or moving in the Christian life of seeing someone truly come to Christ. I hope that you have witnessed that amazing transformation that comes over someone who gives their life to Christ. I hope that you have experienced it for yourself. In the bible we have the dramatic story of Saul later to be known as Paul. What a transformation story he had. From a brutal persecutor of Christians to being beaten, battered and eventually killed for his love of Christ.

Today God continues to work in amazing ways. Touching and transforming lives. We have the stories of many notable atheists and God haters who encountered the living Christ and were never the same again. Here's just a few of the well known, C.S Lewis (professor, philosopher and writer), Anthony Flew (scientist), Chuck Norris (actor and martial artist), Jane Fonda (actress, fitness guru), Alice Cooper (musician), Nikki Taylor (former supermodel), Lee Strobel (journalist and writer), Gary Busey (actor), J. Warner Wallace (detective now writer and speaker) and Josh McDowell (writer and public speaker). These people all have interesting conversion stories. Stories about how God got their attention in arresting ways. But I want to tell you the story of someone who is not well known or famous.

Let me tell you the story of Rene Level Martinez. He was a notorious Florida gang member from the 1980s up until 2012. That's a very long time to exist in that violent and dangerous underworld. He saw many, if not most of his friends and fellow gang members injured or killed. He himself miraculously survived death by his own accounts on 5 or 6 occasions. He also spent time in jail for attempted murder. Had he continued on in this world he would most likely be dead by now. His name would be just another sad statistic.

But in 2012 things changed. His mother who had been heavily involved in Santaria, a bizarre mix of

Afro Carabian folk religion and Roman Catholicism attempted suicide. Following this unsuccessful attempt Christ touched her life, and she became a Christian. Martinez was astounded. He thought his mother had gone crazy. Later that same year his first daughter was born. He decided that he needed to leave the gang world. He took up martial arts and hip hop music. One day when he was working out in his garage he heard God speak to him. He was told, “I spared you for such a time as this.” He fell to his knees and repented. In 2016 he was baptised and starting evangelizing. These are his own words,

“I came back to the streets I used to terrorize but I’m giving them life. Now I’m giving them Jesus. I tell them, repent and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remission of sins, and you sha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Ghost.”

Because of him sharing his powerful testimony many former gang members have turned to Christ. What a wonderful example of the power of Christ.

What a powerful reminder that God always gets His man or woman. Today we will see that God gets Nebuchadnezzar. He too joins the long list of men and women who went from God haters to God lovers. Let's get into the story.

놀라운 개종

성경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찬사에서 느끼는 큰 기쁨에 대해 기록합니다.

□□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누가복음 15:7)

정말 놀라운 성경 구절이 아닙니까? 당신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었다면 이러한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었습니다. □□□□□ . 천사들이 당신을 축하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보는 것만큼 감동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에서 그것을 직접 경험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바울로 불리는 사울의 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얼마나 크게 달라졌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잔인하게 박해하던 자였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구타와 폭행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계속 역사하십니다. □□□ 마음을 어루만치시고 □□ 변화시키십니다. □□□ 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한 저명한 무신론자들과 하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명의 유명한 사람들의 예를 들자면 C.S 루이스(교수, 철학자, 작가), 앤서니 플루(과학자), 척 노리스(배우, 무술가), 제인 폰다(배우, 피트니스 전문가), 엘리스 쿠퍼(음악가), 나키 테일러(전 슈퍼모델), 리 스트로벨(저널리스트, 작가), 게리 부시(배우), J. 워너 윌리엄스(형사, 현재 작가, 연설가), 조쉬 맥도웰(작가, 연설가). 이들은 모두 흥미로운 개종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르네 레벨 마르티네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1980년대부터 2012년까지 악명 높은 플로리다 갱단원이었습니다. 그토록 긴 기간동안 그는 폭력적이고 위험한 범죄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동료들과 갱단원이 다치거나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기적적으로 5~6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는 또한 살인 미수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 그대로 계속 살았다면 그는 곧 죽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망자 명단에 하나의 통계 수치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2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프리카 카리비아 Afro Carabian 민속 종교와 로마 가톨릭교가 기이하게 섞인 산타리아 Santaria 를 깊이 믿었던 그의 어머니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 실패한 시도 후에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셨고 그녀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놀랐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미쳤다고 생각했

습니다. 같은 해에 그의 첫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범죄세계를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무술과 힙합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차고에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위해 살려두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2016년에 그는 세례를 받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예전에 모든 위험했던 길거리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모든 주고 있다. 이제 모든 그들에게 예수를 주고 있다. 모든 그들에게 회개하고 죄 모든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강력한 간증으로 인해 많은 전직 갱단원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한 놀라운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필요로 하는 일꾼을 선택하심을 알게워 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얻으신 것을 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마워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뀐 사람들의 목록에 합류했습니다. 야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34 And at the end of the time I, Nebuchadnezzar, lifted my eyes to heaven, and my understanding returned to me; and I blessed the Most High and praised and honored Him who lives forever: For His dominion is an everlasting dominion, And His kingdom i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first thing to note here is that the narrative resumes in the first person. It is once again King Nebuchadnezzar who is talking. We are picking up the story at the end of his seven years of madness. During those years the king has effectively lived the life of a beast. Crawling around in the soil and mud, surviving on grass and being washed and cleaned by the rain. Those who perhaps came to visit him during this time must have despaired. They must have given up all hope that he would ever return to normal. But in God there is always hope.

Note very carefully how this period of madness comes to its end. It began with the king looking out and marvelling at the wonders of Babylon and revelling in his accomplishments. It ends with him turning his eyes towards God (heaven). It is this that distinguishes us from the animals. We, not the animals are created in God's image. It is us, not the beasts of the field that are the pinnacle of His creation. Only we can recognize, acknowledge and love God. This, for all their beauty and intricate design is not available to hamsters, parrots, whales and tigers.

So even in this small act we see God's mercy on show. God interrupted the king's beast like existence and caused him to look up. God allowed enough reason to return to him that he could understand his dependence on God.

Of course the king did far more than just look up to heaven. Many today "look" up, or acknowledge that there may be a God and then do nothing more about it. Such a response always astounds me. If evidence and reason propel you towards the belief that God exists why would you not do something about it. Why would you not attempt to seek Him. It's rather like discovering an ancient treasure map that tells you there is some treasure buried in a nearby field. Wouldn't you go at night with a spade and dig it up! It might turn out to be a fake, but maybe you'd find a nice hoard of gold.

To truly come to Christ requires more than us just accepting His existence. So when the king looked up to heaven he is finally and willingly submitting himself to God. He has at long last come to a humble admission that God, not him was sovereign and supreme. This is the "understanding" that has now come to him.

Before moving on I have to address the issue of whether the king is really placing his faith in Yahweh to save him. That is the million dollar question. Was Nebuchadnezzar a true believer or not?

Over the years arguments have been made from both camps. Some say yes, he truly came to know

Yahweh and chose to put his faith and trust in Him. Others disagree and argue that he remained a pagan and didn't specifically come to faith in the one true God of the universe. They argue that while he speaks highly of Yahweh it does not mean he is dismissing all the other pagan god. Of course only God knows for sure. We may or may not get to meet Nebuchadnezzar in heaven.

My own belief is that he did come to know Yahweh. My evidence for this stems from two sources. Firstly the glorifying terms he uses to praise God. He uses terms and expressions that go way beyond the usual platitudes one might use on such occasions. And secondly the exclusivity of the worship he addresses to God. Prior to his experience of insanity, his confessions were those of a pagan polytheist. He was happy to accept Yahweh as one of many gods. Now Nebuchadnezzar apparently worships the King of heaven only.

The first thing that the king does is offer praise to God.

He acknowledges Him as being the most high. The one who sit upon the throne above all of His creation. He seeks to honour God who lives forever. This is just another way of saying that he believes God is everlasting or eternal. This is obviously a prerequisite for God. God cannot be a created being, or bring Himself into existence. To be God means that you have always, and will always exist.

He adds to this that he accepts that God's dominion, the area that He reigns over and His Kingdom go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Earthly monarchies typically have lines of succession. In the UK we have a hereditary monarchy. This means we know who will be the future king. After king Charles there will be king William and then king George. However there is always some degree of uncertainty. Someone could die or not wish to be the monarch. Imagine there was a terrorist attack and several, or all of the future monarchs were killed. Then the British monarchy would be in a state of turmoil.

God's kingdom is never subject to such uncertainties. We can rest assured that it will be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This truth also applies to the enduring nature of God's kingdom. Earthly kingdoms rise and fall. Kings reign for a set period of time and then die. When they die their empires or kingdoms may continue to prosper or thrive. Equally, they may be conquered by others who seize the opportunity to invade. Such concerns do not apply to God's kingdom. God will always be sitting on the throne holding all things in His mighty hands.

34 7 년이 다지났을 때 내가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니 내 정신이 되돌아왔다 그래서 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 하고 영원히 사시는 그분에게 이렇게 찬양하였다 “ 그는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나라는 대대로 지속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이야기가 1 인칭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7 년 동안의 광기가 끝난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기간 동안 왕은 사실상 짐승의 삶을 살았습니다. 땅을 기어다니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비를 맞고 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를 본 사람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가 정상으로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이 마치광이 기간이 어떻게 끝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의 광기는 왕이 바빌론의 경이로움을 바라보며 경탄하고 자신의 압력에 개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그가 하나님(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이 차이입니다. 동물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들판의 짐승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의 정점입니다.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 □□□□. 그들의 아름다움과 오묘한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햄스터, 앵무새, 고래, 호랑이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이 작은 행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짐승 같은 삶에 개입하여 그가 올려다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왕은 하늘을 우러러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거나 인정 한 후

에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반응은 항상 저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하는 증거와 이유를 갖고도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왜 그분을 추구하지 않을까요? 근처 들판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알려주는 고대 보물 지도를 발견한다면 밤에 삽을 들고 가서 파내지 않았습니까? 가짜일 수도 있지만 진짜 금덩어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다가가려면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이 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는 마침내 가까이 하나님께 순복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고의 주권자임을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찾아온 "깨달음(understanding)"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왕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여호와의에 대한 믿음이 있는자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중대한 질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수년에 걸쳐 이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진정으로 여호와의를 알게 되었고 그분을 믿고 신뢰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그가 이교도로 남았으며 우주의 유일한 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가 여호와의를 높이 평가하지만 다른 모든 이교도 신들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하
□□□□□□ □□□□. 우리는 천국에서 느부갓네살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가 여호와의를 알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제 증거는 두 군데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영광스러운 용어입니다. 그는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진부한 표현을 훨씬 넘어서는 용어와 표현을 사용합니다. 둘째, 그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의 배타성입니다. 광기를 경험하기 전에 그의 고백은 이교도 다신교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를 여러 신 중 하나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그는 하늘의 왕만을 경배하는 듯합니다.

왕이 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인정합니다. 그분의 모든 창조물 위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왕은 영원히
□□□□□□ □□□□.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원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했고,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통치권 즉 그분이 다스리는 영역과 그분의 왕국이 대대로 지속될 것임을 덧붙입니다. 지상의 군주들은 일반적으로 후계자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세습 군주제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누가 미래의 왕이 될지 알고 있습니다. 찰스 왕 이후에는 윌리엄 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조지 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거나 군주가 되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테러 공격으로 미래의 군주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죽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영국 군주제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결코 그런 불확실성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제, 오늘, □□□□□□ □□□□. 이 진리는 하
□□□□□□ □□□□ □□□□. 지상 왕국은 흥망성쇠를 겪습니다. 왕은 일정 기간 동안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들이 죽고난 후 그들의 왕국이 계속 번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침략자들에 의해 정복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좌에 계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35 All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re reputed as nothing;
He does according to His will in the army of heaven
And among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No one can restrain His hand
Or say to Him, "What have You done?"**

Here we see a marked change in the attitude of king Nebuchadnezzar. Before he had been prone to self-aggrandisement. He was always boasting about how marvellous and great he was. We might even describe him as being stiff-necked. He stubbornly refused to submit himself to the truths that God had revealed. He had seen God's mighty hands at work but refused to change. Now, following his humbling experience he truly recognises his place in the grand scheme of things. **All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re reputed as nothing. That's quite a reversal in attitude. From placing yourself at the centre of things to appreciating that when compared to God we are nothing. The king finally understood that any power or authority that he possessed was merely a shadow of God's overall omnipotence. The source of Nebuchadnezzar's power was of course God. Perhaps Daniel had made the king aware of some of the writings of the prophet Isaiah.

**Behold, the nations are as a drop in a bucket,
And are counted as the small dust on the scales;
Look, He lifts up the isles as a very little thing.
(Isaiah 40:15)**

That verse certainly puts us in our rightful place. A drop of water in a bucket. A speck of dust on some scales. That beautiful and evocative imagery reminds us of the difference between creator and creature. Or what about these verses also taken from Isaiah.

**22 It is He who sits above the circle of the earth,
And its inhabitants are like grasshoppers,
Who stretches out the heavens like a curtain,
And spreads them out like a tent to dwell in.
23 He brings the princes to nothing;
He makes the judges of the earth useless.
(Isaiah 40:22-23)**

Now we must be careful not to misunderstand what these verses say. We might easily read them and assume that God is disdainful of His creation. That He does not care greatly for it and us.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God loves His creation. However He will not tolerate those who challenge His sovereignty. No one as Nebuchadnezzar rightly asserts can stay God's hand or challenge Him on His actions. He will not allow those who reject Him and instead choose a life of rebellion to flourish. Instead, He empowers and lifts up the righteous.

As a pastor I am often asked why God does, or allows certain things. Why is this world full of wickedness and evil. Why do bad things happen to allegedly “good” people. At times, it can become a little frustrating. I sometimes want to say to the person asking me. “I'm just a person like you. Therefore I don't know, and will never know God's mind.” How can the creature know the mind of the creator? All I do know, and this I can state firmly is the following. God can only ever do what is best and right in any situation. That may or may not be a comfort to you in a time of difficulty. But it surely is comforting to remember that God always remains in complete control. Furthermore I can also tell you with certainty that God loves and cares for His children. So take solace in that even if an absolute explanation for your current difficult situation remains elusive.

So king Nebuchadnezzar here is firmly asserting God's place as absolute sovereign over all things.

**35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뜻대로 행하시니 그의 뜻을 거역하거나
그가 행하시는 일을
몰어 볼 자가 아무도 없구나”**

여기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에서 현저한 변화를 봅니다. 이전에 그는 자기를 과시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지 자랑했습니다. 또한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에 복종하기를 완고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지만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굴욕적인 경험을 한 후 그는 모든 것의 위대한 계획에서 자신의 위치를 진정으로 인식합니다. **세상의 모든** □□□□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며 그의 태도의 상당한 반전입니다. 그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관점에서 하나님과 비교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왕은 마침내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전능함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 중 일부를 알려줬을 것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이사야40:15)

이 구절은 확실히 우리를 올바른 자리에 놓았습니다. 통 속의 물 한 방울, 저울 위의 먼지 한 티끌, 그 이름답고 감동적인 이미지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사야의 또다른 다음 구절은 어떨까요?

22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매뚜기 같으랴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23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껍질 껍질 헛되게 하시니(이사야40:22-23)

이제 우리는 이 구절들의 뜻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구절들을 피상적으로 읽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을 멸시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피조물과 우리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주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주장하듯이 아무도 하나님의 손을 멈추거나 그분의 행동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거부하고 반역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변영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반면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들어올리십니다.

목사로서 저는 종종 하나님께서 왜 특정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지 질문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왜 악으로 가득 차 있나요? 왜 "좋은" 껍질 껍질 ? 때때로 약간 좌절감이 듭니다. 저는 가끔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앞으로도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최선이고 옳은 일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껍질 껍질 힘든 시기에 당신에게 위안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을 완전하게 통제하심을 아는 것은 확실히 위안이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것 또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위안을 얻으십시오.

이 부분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위치를 확고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36 At the same time my reason returned to me, and for the glory of my kingdom, my honor and splendor returned to me. My counselors and nobles resorted to me, I was restored to my kingdom, and excellent majesty was added to me.

As soon as Nebuchadnezzar humbly acknowledged the Most High and praised Him, his sanity (**reason**) returned. This was the purpose of his divinely appointed judgment. He was to learn an important lesson on humility. God was not simply punishing him with no end in goal. God wanted him to finally accept his place in the universe. God wanted him to acknowledge that it was God and not him in charge.

Once the king has made this change, accepted this reality, God allowed him to be restored to his position of ruler over the Babylonian empire. What an occasion this must have been. Imagine if you

strategist, planner, ruler and designer. Under his inspired rule the empire of Babylon grew and expanded. He also governed in a sensible way. He allowed conquered people groups to continue worshipping their gods. He also took the best and brightest back to Babylon to help him govern.

However to be balanced we also must acknowledge his many faults. He was an incredibly cruel and violent man. He ruled the empire with an iron hand. He was an arrogant and prideful man. He was very much at the centre of his world. He bowed to no man or god. But God as we saw had plans for this king. God was determined to get this man's attention and teach him a lesson on humility.

His stubborn hard heart made this a long and difficult process. He remained unconvinced by God's mighty acts through Daniel and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It took something far more dramatic to get his attention. God eventually took away his reason and reduced him to living like a beast for seven years. Only then did the king finally bend the knee and admit he was wrong.

How patient God was with him. How many opportunities he was afforded. How many times could he have looked to heaven and repented. So as we read this story and think about what we've read we should remember that this is really God's story. God is revealing something about Himself to us. He is reminding us that He is the God who saves. That He desires that none be lost. But in order to be saved a dramatic transformation is needed in the sinner. We cannot continue on in our sinful pride and rebellion.

Nebuchadnezzar was a terrible sinner. There was not simply blood on his hands, his whole body was drenched in blood. God however was not content to let this man be lost. Least we think ourselves any better we too are wretched sinners. We too deserve God's wrath poured out upon us. And yet God in His grace chose to save us. He sent His Son the Lord Jesus Christ to save wretched sinners like you and me. If you have not confessed to God that you are a sinner, repented or turned from your sins and put your faith in Christ alone for your salvation do not delay. Do it right now.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begin chapter 5. We have a new royal personage to meet.

37 그래서 ▣ 느부갓네살은 지금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는 진실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다

느부갓네살 왕의 선언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끝은 시작했을 때처럼 따뜻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끝납니다(다니엘서 4:1). 그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높인다고 확언하면서 결말을 짓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자신을 높였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되며 그분은 항상 정의로우시다고 선언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가 교만의 어리석음을 강조함으로써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 편에서 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런 자들을 능히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들을 낮추실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고한 교만함 때문에 7 년 동안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는 기원전 562 년에 죽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5 장의 사건들은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수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를 보내기 전에 잠시 그의 놀라운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그는 위대한 왕이었고, 43 년 동안이나 통치했습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뛰어난 전략가, 계획가, 통치자, 설계자였습니다. 그의 영감 어린 통치 아래 바빌론 제국은 성장하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현명한 방식으로 통치했습니다. 정복당한 사람들이 계속 그들의 신을 경배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는 또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데려와 통치를 돕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많은 결점도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잔인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철권으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주의를 끌고 겸손에 대한 교훈을 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의 완고하고 강퍽한 마음으로 인해 그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네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를 보고도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훨씬 더

극적인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의 이성을 빼앗아 7 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왕은 마침내 무릎을 꿇고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그를 참으셨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회개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읽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십니다. 그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두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인에게 극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죄악스러운 교만과 반항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손 뿐만 아니라 온 몸이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자신 또한 비참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저와 같은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거나, 회개하지 않았거나, 죄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께만 믿음을 두지 않았다면 자처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5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다른 왕을 만날 것입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two comments to make based on today's passage.

오늘의 본문에 기초하여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Humility and obedience matter more to God than worldly achievements.

As we get older one of the things we begin to think about is what our legacy might be. How will we be remembered. When we are young we are full of youthful vigour. We often think about all the things we will do, all the things we will accomplish. Perhaps during our lifetimes we have achieved much. Or maybe as we look back we recognise that we didn't do all, or many of the things we thought we would. Perhaps you thought you would write a book, record an album, travel the world, invent something revolutionary, make a million dollars or have a large family. Now as the years fly by we realise we never will achieve those things. For whatever reason they are gone.

Ancient monarchs such as Nebuchadnezzar were often obsessed with what their legacy would be. They desperately wanted to be remembered. They built things that they hoped would last as eternal reminders of who they were and of their greatness. The pyramids in Egypt stand as a good example of this. Other monarchs recorded on stone tablets their achievements or accomplishments. They hoped that these would survive and carry their legacies throughout the centuries. In some cases they have. In other cases we have little idea about what a certain king did.

Ultimately though all of the things we do or don't do here on earth are largely irrelevant. Of course things that are done for God's Kingdom will be rewarded later. But the earthly achievements we strive after are largely meaningless. Will it really matter in a hundred years if you achieved a Ph. D or only an MA? Will it matter if you lived in a two or five bedroomed house? Whether you lived in Gangnam or Gunpo? Whether you drove a Korean made car or a BMW? Of course not.

God is more concerned with how obedient and humble we are to Him. God is interested in the internal state of our hearts. That is the measure by which we are judged. This means that far more of our time and attention ought to be focused on this. So much of our time is wasted chasing after things that in eternity mean nothing. Let us then all seek to be more obedient to Christ, more focused on the things that matter and less prideful.

1. 하나님께는 세상적 업적보다 겸손과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 □□ □□ □□□ □□□□ □□ □□□□□ . □□□□□□ □□ □□□□□? 젊을 때는 젊음의 활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할 모든 일에 대해 그리고 성취하게 될 일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많은 것을 성취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루고자 했던 많은 일들을 성취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이 우리 삶을 위해 베푸신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